

부처님과 함께 치는 골프 입문서 인기

저자 에드 바레인 "찰나에 지금을 선택해야..." 강조

골프는 절대적인 멘탈(정신) 스포츠이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타이거 우즈도 멘탈이 무너지니 그대로 추락하지 않는가. 골프를 칠 때 아주 조그만 요소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진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면 무섭게 잘 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골퍼들은 멘탈의 힘을 키우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 훈련에 거리가 시간을 할애한다.

아마추어 골퍼이자 요가연구가 에드 바레인(Ed Balain, 美) 박사가 펴낸 골프 입문서 <Buddha Play 18>가 미국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온라인 매체 Coast News(theoastnews.com, 이하 '코스트뉴스')는 "각 장의 서두마다 등장하는 불교 삽화와 책 전체에 걸쳐 '마음 다루기'를 강조하고 있는 <Buddha Play 18>이 골프 입문서 이전에 불교입문서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레인 박사는 "골프 팁(Tip)이며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조언을 위주로 보자면 이 책은 손에 꼭 차는 실용서이겠지만, 골프를 통해 불교는 구체적인 몸을 얻고, 불교를 통해 골퍼는 그 몸이 걸맞는 마음을 얻는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바레인은 "타이거 우즈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은 단지 재능과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마음 다루기를 소홀히 생각한 서구문화의 맹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와 불교는 본질적으로 '찰나'에 '지금'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따라서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다짐하는 것 역시 불교와 골프 모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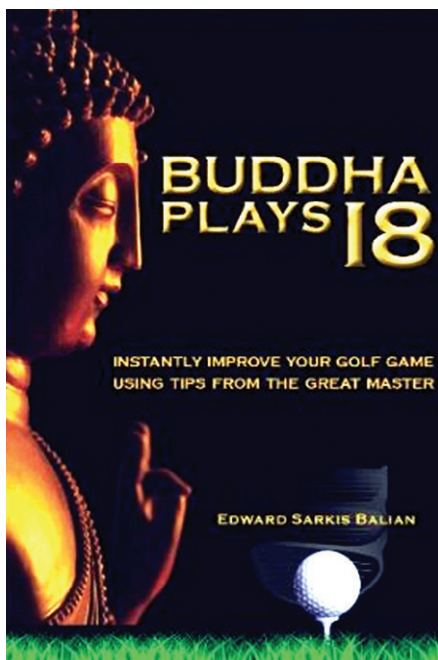


에드 바레인

이에 따라 코스트뉴스는 <Buddha Play 18>이 불교를 배우고 싶은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nongolfers)'의 불교 입문서도 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코스트뉴스는 "이 책은 골프의 기술을 소개하며 골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공부와 관련한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불교적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Buddha Play 18> 표지

동북아 불교교류의 가교를 놓다

세계의 불교학자(9)

히라카와 아키라 平川彰 1915~2002

대승불교 기원의 조명은 근대 일본 불교학의 조류 가운데 하나였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1915~2002)는 불탑신앙(佛塔信仰)과 관련한 참신한 견해를 발표해 학계에 충격을 준 학자이다. 히라카와는 이 같은 견해를 방대한 계율 문헌의 연구를 통한 교단사(敎團史) 연구라는 관점을 통해 도출해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1915년 아이치(愛知)현에서 출생했다. 그는 제8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대학 문학부 인도철학 범문학과에 입학했다. 히라카와는 학부에서 원시불교를 연구하고 '아함(阿含)의 핵심 사상에 대하여'로 졸업논문을 작성했다. 논문은 작성됐으나 그에게 <아함경>의 교리는 난해하기만 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대학원에 진학해 아비달마 불교를 연구했다. 대학원에서 그는 <구사론> (대비바사론)을 공부했다. 이 때 도쿄대학 교수인 미야모토 쇼우손(宮本正尊)으로부터 계율 연구를 권유받아 공부를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학문적 토대를 이루게 됐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대학원 수료 후 조교 생활을 거쳐 1950년(36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조교수로 임용됐다. 1954년(40세) 미야모토 쇼우손의 후임으로 도쿄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이후 정년 퇴직 할 때까지 도쿄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했다.

히라카와의 논문은 학술적으로 탁월한 논문들이었다. 특히 1968년(54세)에 발표한 '초기 대승불교의 연구'는 세계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75년에 정년퇴직 후에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교수가 되어 1985년까지 근무했다. 1993년에는 일본학사원(日本學士院) 회원이 되어 1996년부터는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國際佛敎學大學院大學) 교수 및 이사장을 2002년 별세하기 전까지 역임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40권의 저술과 300편의 논문을 남겼다. 연구 분야도 원시불교 아비달마 반야 법화 화엄 정도 중관 유식 여래장부터 중국이나 일본불교까지 불교 교리를 통시적, 공간적으로 꿰고 있다. 그의 중심 저술은, 도쿄대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 <율장(律藏)의 연구> (1960)가 있다. 히라카와는 이 논문을 통해 종래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던 율장을 자료론(資料論)을 중심으로 연구해 이후의 연구 기초를 만들었다.

<원시불교의 연구> (1964)는 율장 자료에 근거해 초기 교단의 내용을 해명한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원시불교 교단 조직을 이만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계율 연구는 지도교수였던 미야모토 쇼우손으로부터 주어진 과제였다. 하지만 히라카와에게는 계율연구는 힘든 여정이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회고하기를 "새로운 견지로부터 계율 문헌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율의 문헌은 많다.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에서는 1000 페이지의 장경이 3권 있다. 그 외에 빨리(Pali)문이 있고, 범문(梵文) 율전(律典)도 있고, 티베트 역도 있다. 테마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료를 다시 읽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그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3번이나 4번이나 다시 읽고, 겨우 테마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계율 문헌 연구 통해

대승불교 불탑신앙 연구 독역

'초기 대승불교 연구' 등 논문 탁월

<율장연구> 등 저서도 40여 종

그는 원시불교의 교단 조직 연구를 대승불교의 연구에도 적용시켰다. 그리고 대승불교 교단 조직도 연구했다. 이는 <초기 대승불교의 연구> (1968)로 이어진다. 이 논문은 히라카와 아키라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논문이다. 그는 책에서 대승불교 기원에 대한 학설을 기술했다. 그 때까지 대승불교의 기원은 주로 부파불교(部派佛敎) 가운데 대중부(大衆部)라고 생각해 왔다. 히라카와는 그 기원을 재가신자(在家信者)를 중심으로 하는 불탑교단(佛塔敎團)이라고 지적했고, 경제적 기반을 불탑에 주어지는 보시(布施)라고 추정했다. 불탑교단 기원설은 세계 불교 연구사 중에서도 독특한 것이며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히라카와의 학문은 해박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어느 학자의 회고에 의하면 히라카와는 만년이 되어서도 어떤 문헌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것은 신수대장경 어디에 있다"고 순식간에 지적할 정도였다고 한다.

조동섭 기자

“지진 아픔을 함께”

요시오카 스님, 비정기 간행물에 핵 재난 담야

2011년 5월 핵 재앙을 당했던 후쿠시마 현의 실상을 알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근심 달래기 위해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한 스님이 화제다.

요미우리신문(yomiuri.co.jp)은 "후쿠시마 소재 엔쥬지사(Entsujji temple, 円通寺)의 주지 도켄 요시오카(Token Yoshioka, 64) 스님이 지난해 가을부터 비정기 간행물을 배포, 핵 재난을 당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2월 28일 보도했다.



엔쥬지사(Entsujji temple, 円通寺)의 주지 도켄 요시오카(Token Yoshioka, 64) 스님

요시오카 스님은 지난해 가을 '핵 재앙이 없었다면, 무엇이 현존하고 있었을까?'를 제호 첫 번째 간행물을 배포하고, 후쿠시마 원전 인근 주민들, 특히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 농산물과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고난을 알렸다.

1월 1일 '칸지(kanji)'를 제호로 발간한 두 번째 간행물에서는 핵발전의 허상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Co.)을 고발하고 나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피해자들의 삶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고, 그들의 깊은 슬픔을 이해가 공감하게 되었다"는 일본인부터 "핵 재난의 위험을 감춘 채, 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구 정부의 허상을 알리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외국인까지, 비정기 간행물에 쏟는 일본 열도의 관심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첫 번째 호는 4천장 발간에 그쳤지만, 두 번째 호는 1만2000장 발간했다는 점도, 그런 관심을 가늠하게 한다.

"지난해 8월 친척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도쿄에 3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현의 핵 재앙이 왜곡되어 알려지고, 후쿠시마와 무관한 일본인들이 얼마나 무관심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후쿠시마 핵 재앙에 대해 무지에 가까운 그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일깨우기로 했습니다."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 요시오카 스님은 "오는 5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맞아 세 번째 간행물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하나 둘 문을 닫고 떠나가는 후쿠시마 소재 유치원, 10분의 1로 떨어진 후쿠시마 소재 리조트와 호텔 등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헝가리, 불교 포교 합법화 될까

'양심과 교회, 종교에 대한 법률' 의회 의결 남아

불교가 헝가리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포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

온라인 매체 보스톤닷컴(articles.boston.com)이 "헝가리 연합정부가 내주 5곳의 불교단체와 감리교, 여호와증인교, 이슬람교 등을 포함한 14~32개의 '공인 종교단체'를 확정한다"고 2월 27일 보도했다.

'공인 종교단체'는 정부의 세금 혜택을 물론 종교 헌금(기부)을 받을 수 있고 교도소와 병원 등에서 공개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헝가리 정부는 '교회 법률(church law)'에 근거, 기독교와 유대교만이 법원에 등록된 후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유럽의회로부터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노골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헝가리 기업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등록하는 사례가 400여 차례나 발각되자, 헝가리 정부는 2011년 7월 '교회 법률'을 철폐하고, '양심과 교회, 종교에 대한 법률'을 제정, '공인 종교단체'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심과 교회, 종교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교단과 교회는 모두 당국에 재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등록 과정에서 등록이 불허되면 종교단체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일정 규모 이하의 교단이란 헝가리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기록이 있고, 1천 명 이상의 신도가 확보되어 있는 종파를 의미한다.

오종욱 편집위원

캄보디아, 소 바비큐 사진 게재 금지

불교계 "불법 거스르는 폭력적 그림" 반발

캄보디아 정부가 음식점이나 공개 장소에서 '소 바비큐' 관련 간판을 걸거나 세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 싱가포르 온라인 매체 ST(straittimes.com)는 "캄보디아 훈센(Hun Sen) 수상이 '잔인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소 바비큐 관련 모든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영라디오 방송을 통해 밝혔다"고 27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 불교계는 "소 바비큐 관련 이미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거스르는 폭력적인 그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소 바비큐 관련 이미지 사용을 금지시킨 것.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소 바비큐를 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돈과 명성에 매달릴까?
나는 무얼 얻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걸까?
무엇이 끝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의 물음이 넘칠 때, 손닿는 곳에 월간「불광」이 있다

Event

월간 불광이 궁금하세요? 총 200부씩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로 지금 참여하세요!

- 기간 3월 2일 ~ 18일
- 트위터에서 만나기 @bulkwang_C의 이벤트 트윗을 RT해 주세요.
- 페이스북에서 만나기 이벤트 참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www.facebook.com/bulkwang
- 이메일로 만나기 '월간 불광 이벤트 참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bulkwang_C@hanmail.net

매일 아침 108배를 5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던 날, 구독신청했죠. 전에도 좋았고, 새로운 모습도 더욱 좋습니다. 늘 함께하는 친구 같아요.

- 유재석 님

특집 기사가 참 좋네요. 어떤 불교 매체에서도 접하기 힘든 사진과 내용이 매달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 한지수 님

10년 넘게 구독하고 있는데, 이처럼 들뜬 마음은 처음이에요. 영원히 소장하고 싶은 잡지입니다.

- 이동연 님

어려운 시기에 광고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어요. 광고 잘 만들어줘 정말 고맙습니다.

- 이재여행사

다 큰 자식 길들이기가 더 어려운 법인데... 너무나 멋진 변신입니다. 「불광」 덕에 불교계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 인혁님 님

월간 「불광」 어플리케이션 출시 | 어플에서 「불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매거진플러스(Magazine Plus)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원하는 호수를 선택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 매호당 2,999원)

월간 「불광」 구독 문의 Tel. ☎ 420-3200 www.bulkwang.co.kr
1년 정기 구독료: 60,000원 1권: 6,000원(은-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